

# 렌즈를 통한 목적 없는 탈주

## Aimless escape through the lens

차민영 (홍익대학교)

## 차례

1. 서론
2. 작품 분석
3. 결론

### 1. 서론

시각적 관찰은 타자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인간과 세계를 맺어주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또한 헤겔은 인간의 영혼이 내비치는 눈에 정신과 사고의 내면이 압축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카프카의 「골목길로 난 창」에서 고독한 자아는 골목길로 난 창을 통해 주위세계와 접촉하고, 불안의 위기에 처한 자아를 폭로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화해를 추구한다. 그의 문학에서 자아는 꿈과 같은 환상세계의 순수 자아와 경험세계의 일상의 자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자아는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는 순수 자아와 상대세계로 설정할 수 있는 일상의 자아 사이의 투쟁을 카프카 문학의 한 주제로 상징할 수 있다. 그의 문학은 일종의 순수 자아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카프카가 이 투쟁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비록 순수 자아를 동경하지만 늘 일상으로 되돌아오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카프카에게 있어 일상의 자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 비평의 영역에서 ‘카프카적인’이라는 새로운 형용사가 생겼을 정도로, 그것은 특히 자본주의적 공간에 대한 보편적인 상징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프카에 관련된 사전을 편집한 하트무트 뮐러는 ‘카프카적인’이라는 단어가 전율, 불안, 소외, 좌절을 나타내는 표제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이 용어가 불투명하고 의미 없는 운명에 어쩔 수 없이 내맡겨져 있는 상태에 대한 상념을 불러일으키며, 죄와 절망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무가치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관료주의적 조직 및 익명의 권력구조에 대한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 에서 일상의 자아는 익명의 권력 시스

템 안 에서 스스로 위협받으며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고립된 존재이다. 이러한 일상의 자아는 언제나 순수자아를 동경하며 탈주를 꿈꾼다. 카프카가 골목길로 난 창이라는 관찰 장소를 택했다면 본인은 작은 렌즈를 택했다. 렌즈 구멍은 내가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상징적 매개체이며 관객과 나의작품을 소통하게 하는 특수한 통로이다. 이 통로의 특수성은 삶을(작품을) 통찰하게 해주는 동시에 왜곡된 상을 보여 줌으로써 실제 체험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렌즈구멍은 양파의 껍질을 벗겨나가듯 작품의 표면에서 내부 세계로의 진입을 유도한다. 본인의 작품 표면은 주로 가방이라는 오브제로 대표된다. 가방은 개인을 규정하는 사회체계의 획일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동시에 여행이라는 자유에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오브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방이라는 오브제는 담고 가두는 한계적이고 억압된 공간임에 틀림없다. 한편 렌즈를 통해서만 들여다 볼 수 있는 내부세계는 현대의 모습을 닮아 있는 축소모델의 세계이며 가공의 세계이다. 현대사회의 권력의 시스템이 그러하듯 축소모델의 가공의 세계는 철저하게 의도된 틀지워진 공간이며 가방에 의해 간혀 있는 공간이다. 이렇듯 본인의 작품은 렌즈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안과 밖의 작품이 존재 하며 이 안과 밖은 서로를 가두고 동시에 탈주를 가능하게 하는 도피선의 역할을 하며 변증법적으로 의미를 증식시킨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 2. 작품 분석

## 2.1 Missing link

Missing link는 6개의 가방으로 구성된 시리즈 작품이다. 목직인 서류가방과 책의 주름구조는 가방-책으로의 변신을 도모했다. 펼쳐진 가방-책 사이로 뚫린 렌즈는 각각의 가방-책 속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구멍을 통해 바라본 축소모델의 세계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또 다른 가방들을 통해 그 것이 여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견고하게 갇혀있는 가방 속의 또 다른 가방의 여행은 쉽플라가데스의 바위를 통과하는 것만큼 여의치 않다. 맨 처음 가방은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낯선 호텔방 같은 곳에 놓여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너무 높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바깥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장치는 개인이 밖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후에 가방은 오후의 빛이 따사롭게 비추어지는 성, 차원을 이동하는 기계 장치, 무한 복제되거나 반대로 복제 장치에 의해 삼켜지는 다양한 공간 등에 배치됨으로서, 각각의 장소나 상황에 걸 맞는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가방 속 가방이 추구하는 닫힌 회로망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몸부림은 가방-책의 변신과 비 선적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탈주할 수 있는 희망의 잠재성을 부여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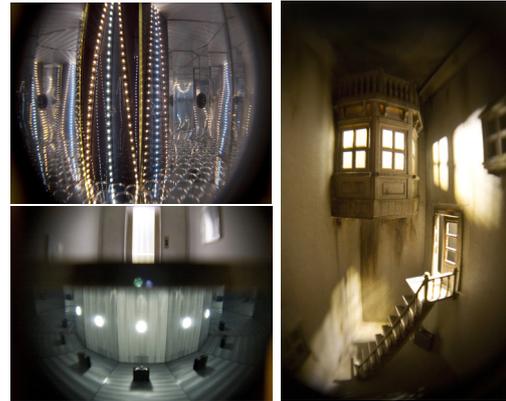
▶▶ 그림 1. <Missing link> 전체



▶▶ 그림 2. <Missing link 내부- hotel>



▶▶ 그림 3. <Missing link 내부- chase, studio>



▶▶ 그림 4. <Missing link 내부- mirror room, elevator, cas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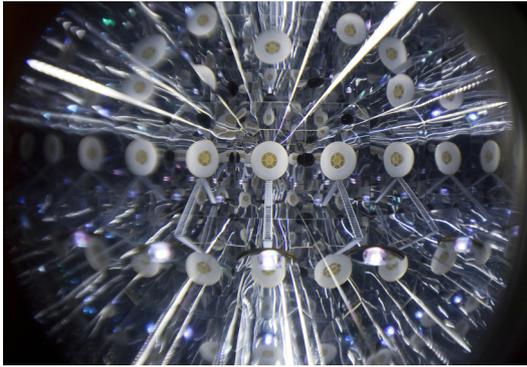
## 2.2 Flying suitcase



▶▶ 그림 5. <Flying suitcase>



▶▶ 그림 6. <Flying suitcase - 부분>



▶▶ 그림 7. <Flying suitcase - 내부>

Flying suitcase는 가방의 비행기 ‘되기’이다. Missing Link 시리즈가 책과 이야기구조로 탈주를 꾀한다면 이 작품은 간혀있는 가방 속 존재가 그리고 획일화된 가방이라는 오브제가 비행에 합당한 존재로의 변신을 통해 탈주를 시도한다. 작품의 외형은 가방과 비행기가 합체된 형상이며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영상작업은 비정형의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반복적으로 힘겹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계단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획일성의 상징이며 한 방향으로 그리고 천천히 몸부림치며 이동하는 덩어리는 무엇인가와 만나 변신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존재의 상징이다. 비정형의 덩어리는 렌즈를 통해 보이는 견고하게 간혀있는 축소모델의 세계 안에도 존재하는데 그 것은 거울의 방처럼 연출된 우주선 중심에 배치되어 비행에 합당한 존재가 될 때까지 발광하며 서서히 돌기를 반복한다. 이 비정형의 덩어리는 합당한 변신을 통해 우주로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한 반사면들로 채워진 우주선은 분명 출구가 있으나 반사이미지들의 교란으로 결코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가방 속 존재를 표류하게 만든다.

### 2.3 Subway suitcase

철로위에 놓여 저 있는 여행 가방은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하면서 자유에의 의지를 느끼게 한다. 이렇듯 철로와 여행가방의 만남은 언젠가 어디엔가로의 떠남과 희망 그리고 동시에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주의 희망을 극대화 시킨다.

그러나 세 변으로 닫혀 있는 구조로 틀 지워진 철로위의 여행 가방은 이미 정해진 궤도 안에서만 이동 가능할 뿐이다. 렌즈를 통해 보여 지는 여행가방 내부는 낡고 험한 도시지하철의 한 칸이며 이 밀폐된 공간은 거대 체계

속 에서 생산을 위해 반복적으로 돌려지는 현대인들의 공간을 대변한다. 끊임없이 빠져 나오는 이미지의 영상 작업과 함께 배치되어 있는 지하철 내부는 멈춤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끊임없이 이동할 뿐이다.



▶▶ 그림 8. <Subway suitcase - 외부>



▶▶ 그림 9. <Subway suitcase - 내부>

### 3. 결론

틀되즈는 [카프카론]에서 카프카의 세계는 일종의 땅 굴이며 땅 속에 박힌 줄기의 세계라고 지적한다. 그의 작품 '성(城)'에는 많은 입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른다. 지하줄기적인 세계는 제 3의 다른 차원을 찾도록 요구한다. 제 3의 다른 차원은 일종의 접면들로 무수한 파편들, 땀들, 분할의 고조는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욕망은 그러한 모든 자리와 상태에 있으며, 모든 방향을 향한다. 따라서 욕망은 형태가 아니라 과정이며 진행이라 할 수 있다. 카프카가 말했듯이 문제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출구이다. 저기가 여기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단지 여기를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가능성이 중요하다. 본인의 작품 속 가방은 전체 인간에 대한 환유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체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한편으로 끊임없이 탈주를 꿈꾼다. 카프카문학의 일상의 자아와 순수자아의 투쟁처럼 긴밀하게 얽혀있는 있는 두 자아는 떠남과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표류한다. 돌연한 출발이 익숙한 선적인과관계와 확고부동한 질서로부터 이탈시키듯 탈주는 그 목적지가 없다 해도 여러 개의 도피선들을 그으며 다양한 계열들을 형성하며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 시킨다.

#### 참고 문헌

- [1] Gilles Deleuze/Feliz Guattari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인진경 옮김, 동문선, 서울, 2001
- [2] Franz Kafka, [변신 · 시골의사], 진영애 옮김, 민음사, 서울, 1998
- [3] Gilles Deleuze,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서울, 1999
- [4] Roland Bogue, [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옮김, 새길신서, 서울, 1995

#### 저자 소개

##### ● 차 민 영(Minyoung Cha)



- 2000년 2월 : 홍익대학교 판화과(학사)
- 2003년 2월 : 홍익대학교 판화과(석사)
- 2012년 현재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 수료